

# 콘돔 하나로? 간 큰 사내들...

홍해걸 /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에**이즈 공포증(AIDS Phobia). 최근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신종 노이로제다. 해외출장차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온 종합상사직원 K씨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보자.

“우쭐하는 심정으로 잠깐 재미를 보려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콘돔을 착용한 것까진 좋았는데 키스를 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귀국 후 입가에 물집이 생기고 갑자기 몸도 근질근질 가려워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혈액검사에 감염여부가 나타나려면 서너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때까지 초조해서 어떻게 기다리지요?”

불안하긴 국내사정도 마찬가지다.

“직업여성과 콘돔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최근 잦은 설사와 기침감기를 앓고 있어 에이즈 초기증상이 아닌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만일 에이즈에 걸렸다면 식구들과 식사도 같이 해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에이즈 공포 때문에 학업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익명의 대학생이 보내온 독자건강상담 문의편지의 일부에서 발췌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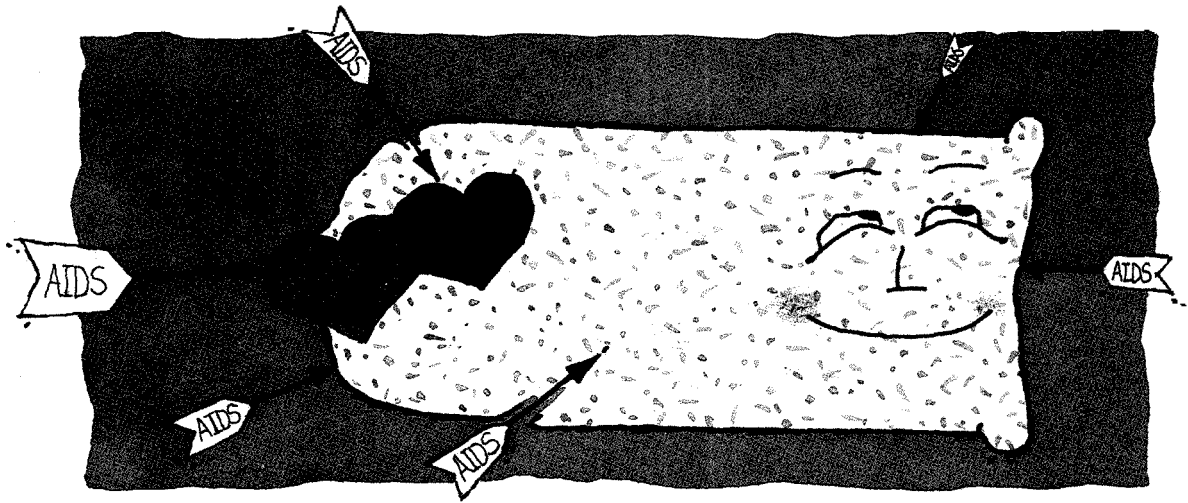
에이즈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들의 한결 같은 공통사항은 콘돔과신에 있다. 물론 성관계시 콘돔을 착용하면 에이즈 감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콘돔은 에이즈예방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성행위도중 콘돔이 벗겨질 수도 있으며 찢어지거나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콘돔이 가장 완벽한 피임법일 것 같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경구피임약 복용보다 훨씬 피임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콘돔의 불완전성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에이즈바이러스는 정액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혈액은 물론 타액 내에서도 검출되며 실제 타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한 것이다. 가령 성행위시 혀를 이용해 깊은 키스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물론 대개의 경우 한두번의 키스만으로 무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입안이 혈이 있다거나 구내염 등 염증이 생긴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손상된 구강점막 사이로 타액 내 에이즈바이러스의 침투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다.

실제 정상적 섹스에 비해 동성연애자간에 에이즈감염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도 동성애자간의 항문성교 등 비정상적 성행위로 인한 점막손상으로 전염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콘돔은 에이즈예방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 / 이정화

있다.

콘돔이 결코 에이즈 예방의 보루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에이즈 예방의 최선책은 결코 불건전한 성행위를 적당히 즐기되 의학적으로 밝혀진 감염경로를 콘돔 등으로 차단하면 된다는 불순한 의도에선 얻어질 수 없다.

본능의 행위이자 쾌락의 향연인 섹스에서 벗어질 수 있는 갖가지 돌발상황에 대해 과연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묻고 싶다.

최선책은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알팍한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위험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에이즈 공포증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은 대개 무사한 경우가 많다. 또 에이즈 초기 증상으로 오인되는 갖가지 증상들도 따지고 보면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심인성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죄지은(?) 사람에게 이러한 에이즈공포증이 불필요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에이즈공포증에 오래 시달린 사람일수록 개과천선하고 향후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콘돔 하나로 에이즈 따윈 개의치 않겠다는 구제불능형 간 큰 사내들이다. 이들에게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비아냥거림으로 대하는 것만으론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극복을 위한 최선책은 결코 알팍한 의학지식이 아닌, 건전한 성도덕의 확립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A**

**최선책은**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알팍한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위험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